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에서 경험하는 딜레마에 대한 탐색

A Study on Dilemma Experienced by Nursery School Teacher Students Majoring Children's Welfare during Nursery Practice

임경옥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Kyung-Ok Lim(lim0006@swc.ac.kr)

요약

본 연구는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이 실습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딜레마와 딜레마를 해소시켜주는 요인을 탐색하여, 보육실습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S여대 사회복지과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예비보육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저널 및 관찰일지와 면담을 통해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복읽기를 통해 연구문제에 관련된 의미를 도출한 후, 범주화 과정을 거쳐 핵심어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핵심어들을 모아 유사한 개념들을 재분류 한 후 하위주제(sub-theme) 및 대표주제(theme)를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보육실습에서 경험하는 딜레마는 지도교사, 영유아, 수업, 과중한 업무, 자신과 관련하여 도출되었으며, 보육과 사회복지라는 선택적 대안이 가능하므로 인해 두 갈래의 길에서 갈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딜레마를 해소 시켜주는 요인으로는 영유아들의 변화, 보육실습 동료들의 응원, 실천적 지식의 획득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논의에서는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의 보육실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예비보육교사 | 보육실습 | 질적 분석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effectively teach nursery practices by investigating the dilemmas experienced by nursery school teachers-in-training majoring in children's welfare during nursery practicums and factors for solving such dilemmas. To this end, a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journals, daily monitoring reports and interviews with 15 nursery school teachers-in-training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 Women's University. The meaning related to the theme of the research was identified by repetitive reading in the process and then, the key words were determined through the categorization process. Next, the key words with similar concepts were re-classified and the sub-theme and the main theme wer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dilemmas experienced during nursery practicums were related to tutors, children, classes, excessive work and the self. Furthermore, the subjects reported inner conflict because they had the alternative to select nursery or social welfare. The factors relieving such dilemmas included a change of children, encouragement from colleagues and the acquisition of practical knowledge.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n approach to effectively implement nursery practicums for nursery school teachers-in-training majoring in children's welfare in the discussion chapter.

■ keyword : | Nursery School Teacher Students | Nursery Practice | Qualitative Analysis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으로서, 예비보육교사가 이수한 교과목, 훈련, 경험 등을 종합 및 반영하면서 배울 수 있는 현장의 수련과정이다[1]. 즉, 이러한 현장의 수련과정을 통하여 역량강화 및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고 보육교사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육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 및 지식을 직접 현장에 적용해보면서 보육의 실제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육실습은 예비보육교사들에게 보육현장을 통하여 경험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현장에 필요한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고, 보육교사로서의 책무와 전문성을 키우며, 자신의 교사관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2]. 더불어 보육실습 경험은 예비보육교사들에게 다양한 실습생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육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술 습득 및 교사로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도록 하고 성공적인 교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준다[3].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2016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급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2017년부터 보육실습 시간을 종전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국가에서도 보육실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는 실습기간 동안 자신의 지식을 조직하고 교직원관을 형성하며 교수 스타일을 개발하는 총체적이고 반성적인 경험을 해야 하며, 도제(apprenticeship)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4].

현재 보육교사 자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전공을 통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예비보육교사들은 일반적으로 보육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교과목만을 이수하고 있다. 즉, 보육학과 예비보육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수강하는 현장참관 및 관련된 사전실습을 경험하지 못하는 등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습과정에서 보육학과 전공자들과는 다른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딜레마 상황에서는 상이한 가치가 개입된 두 개의 대안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서로 단절적이고 상충적이며 가치가 엇비슷하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5]. 국어대사전에서는 궁지를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처지’란 뜻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딜레마에 내포되어 있는 양자 간의 선택이나 선택 이후에도 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딜레마의 제한적 의미보다는 보다 폭넓게 사용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딜레마의 의미를 궁지 및 갈등이나 부정적 경험까지도 내포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딜레마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선택, 쉽고 어려움의 수준이 아니라 개인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6]. 따라서 이러한 딜레마의 속성은 실습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들을 성장시켜 주기도 하는 반면 교직 및 가치관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유아교육이나 보육만을 전공한 예비교사들 보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예비보육교사들에게는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육전공예비보육교사들은 다른 대안이 없는 반면 사회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보다 취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보육실습현장에서 겪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은 보육전공 예비보육교사들에 비하여 진로를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보육실습이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교직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실습 과정에서 딜레마를 경험하는 모든 예비보육교사들에게 정서적·물리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보육실습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양질의 보육실습 경험이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지원은 대안적 선택이 가능한 사회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석훈(2008)은 실습과정에서 맞게 되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이 예비보육

교사들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비보육교사들이 실습과정 중에 겪는 딜레마의 요인과 효과를 발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7].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딜레마에 관한 연구들[8-11]은 있지만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 과정에서 겪게 되는 딜레마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딜레마를 분석하고 재조명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의 보육실습 경험에 대한 딜레마를 파악하기 위해 저널 및 관찰 일지와 면담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보육실습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은 실습과정에서 어떤 딜레마를 경험 하는가?
- 둘째,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이 실습과정에서 겪는 딜레마를 해소시켜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의 보육실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딜레마와 딜레마를 해소시켜 주는 요인을 연구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사회 현상 또는 사회적 실제(social reality)란 자연 현상처럼 사람과 동떨어진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생각·언어·개념 등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상호 주관적(inter-subjective)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에[12]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the phenomenological)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lived experiences)적 의미를 기술한다. 따라서 현상학자들은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둔다[13]. 이에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현상학적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연구 문제에 대해 현상학적 접근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결정한 후 연구의 관심이 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에 현상을 경험한 연구대상자로부터 반성적 저널 및 영유아 관찰 일지와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근거로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을 의미 있는 진술들을 찾는 수평화(horizontalization)과정을 거쳐 주제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S 여자대학 사회복지과에서 3년 과정으로 아동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재학생 15명이다. 이들은 1학년부터 본 연구자의 강의를 수강 했던 학생들로 2학년 겨울방학 동안 4주간의 사회복지 실습을 경험하였고, 3학년 여름방학 동안 4주간의 보육실습을 마무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유목적적 표집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습을 나가기 전 사전에 연구의 목적을 밝혔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일련의 실습과정들을 통해 보육현장에서 겪은 딜레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 들 중 6명은 각 각 2주씩 연령이 다른 반을 경험했다. 이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

예비 보육 교사	연령	실습대상 연령	기관 유형	예비 보육 교사	연령	실습대상 연령	기관 유형
A	21세	만5/2세	국공립	I	21세	만3세	사회복지법인
B	22세	만4/2세	국공립	J	22세	만5/2세	직장
C	22세	만4세	국공립	K	21세	만3세	직장
D	23세	만3세	국공립	L	21세	만5세	직장
E	21세	만3세	국공립	M	25세	만4세	민간
F	21세	만1/3세	사회복지법인	N	21세	만5/3세	민간
G	21세	만4세	사회복지법인	O	21세	만4/2세	민간
H	21세	만4세	사회복지법인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반성적 저널 및 영유아 관찰일지와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반성적 저널은 보육실습 O. T 때 작성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 2회 총 8회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실습하는 동안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및 반성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솔직하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면담은 2015년 6월 15일부터 8월 21일 사이에 진행된 4주 실습이 끝난 후, 2015년 9월 7일부터 2015년 11월 12일 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예비보육교사 15명을 만나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면담 7일 전 E-mail을 통해 면담 질문에 대해 미리 알려주었다. 면담은 Steinar과 Svend(2009)가 제시한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questionnaire) 면담 질문을 참고하여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14]. 질문지 내용은 보육실습 지도를 하고 있는 보육학과 교수 1인 및 보육실습지도 경험이 있는 1급 보육교사 2명에게 내용타당도 검토를 의뢰한 다음 예비보육교사 3명을 대상으로 예비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문제에 부적합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한 후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육실습을 통해 어떤 딜레마를 경험하였고, 어떻게 해소 하였는지에 초점을 두어 질문을 제시하였다. 주요 질문으로 첫째, 보육실습을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나요? 둘째, 보육실습 기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셋째, 보육실습을 하면서 어떤 갈등을 느꼈나요? 넷째, 보육실습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다섯째, 보육실습 중 경험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 혹은 해소 하였나요? 등의 개방형 질문을 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대답 및 반응에 따라 세부 질문과 추가질문을 하였다.

면담은 필요에 따라 1~2회 실시되었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였다. 그리고 면담 후에는 면담 분위기 및 연구 참여자의 표정, 말투 등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작성하여 분석에 참고하였다. 연구자는 모든 면담 내용에 대해 예비보육교사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고, 전사과정을 거쳤다. 전사된 면담내용은 A4용지 총 48장 분량이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면담과정에서 녹음된 자료를 모두 전사하여 문서화된 기록과 예비보육교사들의 반성적 저널 및 영유아 관찰일지를 가지고 Van Kaam(1969)이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15]. 자료 분석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을 하면서 경험한 딜레마와 딜레마를 해소시켜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자료 분석 과정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자료들을 거쳐 가며 읽기과정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의미를 규명하고 도출하기 위해 자료에서 드러난 의미 있는 진술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기록된 진술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공통의 속성으로 묶어지도록 범주화하였다. 그런 후 범주화 된 자료들을 다시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료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핵심어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반복되는 핵심어들을 번호별로 기록하고, 각 항목별로 반복되는 핵심어들을 모아 유사한 개념들을 재분류 한 후 맥락에 따라 하위 주제(sub-theme)를 정하였고, 이를 다시 정리 하여 대표되는 주제(theme)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처음 분류되어진 하위 주제는 보육실습에서 경험하는 딜레마와 관련하여 8개, 딜레마를 해소시켜주는 요인과 관련하여 6개로 분류되어졌다. 이후 재 범주 작업을 거쳐 보육실습을 하면서 경험한 딜레마는 5개, 딜레마를 해소시켜주는 요인은 3개로 축약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범주화하여 2개의 주제로 도출 한 후 이를 기반으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Padgett(1998)의 제안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16].

첫째, 자료 분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자료 분석 과정에 연구자, 보육학과 교수 1명, 1급 보육교사 1명이 참여하여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분석함으로써 일관성과 객관적 관점을 가지고 심층적인 분석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분석 과정에 참여한 모두가 코딩한 부분을 살펴보고, 분석결과 86% 이상 일치하였다.

둘째, 분석된 자료들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여, 그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의 정확성을 재확인하

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 확인 작업(member checks)을 하므로 연구자가 가진 주관성을 배제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학과 교수에게 전반적인 피드백을 받음으로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동료검토와 외부감사(Guba, 1985)를 실시하였다[17].

넷째,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실습기간동안 예비보육교사가 작성한 반성적 저널 및 영유아 관찰일지를 수집하여 심층면담 자료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삼각측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보육실습 현장에서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이 경험한 딜레마는 딜레마와의 만남과 딜레마의 헤어짐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집약되었다.

1. 예비보육교사들과 딜레마와의 만남

1.1 실습지도 교사와의 딜레마

역량이 풍부한 실습지도 교사를 만나 양질의 보육실습을 경험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로 성장하게 할 뿐 아니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예비보육교사들은 지도교사들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전수받길 원하였다. 그러나 기관에 따라서 실습지도 교사의 체계적인 실습지도 부재 및 역량부족, 인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았던 장면을 포착하게 되고,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실습을 했던 곳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전공한 교사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유아교육전공 교사들과 보육전공교사들은 자기네들끼리 뽕뽕 뭉쳐 있었어요. 그리고 실습지도교사도 사회복지과라고 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전화해서 실습 그만 두겠다고 평평 울었잖아요(예비보육교사D, 면담, 2015. 10. 06).

보육실습생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잘 지도해주는 곳도 있겠지만 지도하는 것을 번거로워 해서 눈치 보며 지내는 한 달이 내내 힘들더라고요(예비보육교사O, 면담, 2015. 09. 10).

여자아이 두 명이 펜을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많이 당황스러웠고 실습생인 내가 훈육을 해도 되는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지도교사는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았어요(예비보육교사K, 면담, 2015. 10. 09).

1.2 영유아와의 딜레마

예비보육교사들은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 즉, 문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사고의 확장을 위한 적합한 질문 방식, 훈육방법 등에 대해서 보육만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적용하면서,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딜레마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들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생각을 발전하게 되는데 그에 비해 나는 책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정답을 추구하며 유아들을 대해 모든 상황들이 힘들었다(예비보육교사A, 저널, 2015. 08. 04).

장난감으로 친구를 때리는 아이, 교재교구를 몽당 독차지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만지면 짜증을 내는 아이, 자유놀이 시간에는 활발하면서 수업시간에만 소극적이 되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보육학과였으면 지금처럼 많이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다(예비보육교사B, 저널, 2015. 07. 10).

한 남자아이가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해서 훈육을 하려 노력했으나, 그 아이가 말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2년 내내 보육만 했으면 지금보다는 대처를 잘 했을 것 같아 사회복지를 한 것

이 후회 되었어요(예비보육교사J, 면담, 2015. 10. 29).

1.3 수업에 대한 딜레마

예비보육교사들은 실습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연계수업을 비롯한 올데이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들은 보육계획안을 짜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험을 통해 교수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대체적으로 보육실습을 경험하는 모든 교사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전공이 아니기에 더욱 힘 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이 학습 후 활동지를 하게 되는데 사다리타기 같은 경우에는 만 4세 유아들에게 설명해줄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 설명을 포기하고 빨리 끝내려고 같이 해주기도 했어요(예비보육교사B, 면담, 2015. 10. 20).

보육계획안 짜는 것도 어려웠는데 연계수업은 정말 참담했던 것 같다. 도입부분은 설명하지도 못했고, 아이들이 겨울옷과 여름옷을 잘 구분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였는데 옷 입히기를 할 때 아이들이 엉뚱한 옷을 입혀 1차 당황했고...보육만 했으면 이렇게 어렵거나 실수하지 않았을 것 같았다(예비보육교사M, 저널, 2015. 06. 26).

연계수업 활동을 하였는데 미술활동 중 시간이 부족하여 작품을 완성하지 못해 울음을 터뜨린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에게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하는 건지, 수업의 마무리를 위해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되었다.. 보육전공이였으면 판단을 잘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예비보육교사N, 저널, 2015. 07. 17).

1.4 과중한 업무에 대한 딜레마

예비보육교사들은 지도교사의 지도방법에 대한 기대, 아이들과의 만남, 현장의 상황들에 대해 설레임을 가지

고 실습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업무들이 보육교사 앞에 놓인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과중한 업무들로 인해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함을 토로하였다.

올데이 수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다음 주 주제에 맞는 영역 7개에 들어갈 교구도 하나씩 만들어 오라고 하였다. 올데이도 다 만들어야하는 교구라서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았는데 영역 7개중 4개는 사고 3개는 만들고... 발도로프 인형계획안도 제출하라고 하셔서 실습을 포기하고 싶었다(예비보육교사I, 저널, 2015. 07. 28).

실습 일주일을 하고나니 사회복지 실습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사회복지의 행정업무, 현장업무 및 클라이언트의 주변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큰 사회를 신경 써줘야 하는 반면, 보육은 큰 사회에 나가기 전 작은 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걸 다 해줘야하기 때문에 할 것들이 너무 많아 무지 힘들었어요(예비보육교사I, 면담, 2015. 10. 14).

1.5 자신에 대한 딜레마

보육실습을 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만,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예비보육교사들은 실습기간 중 보육과 사회복지라는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보다 더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실습생이면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한 부분도 두 가지 전공을 함으로 인해 실수에 대해 더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이들의 증언을 통해 좀 더 확실하게 도출되었다.

실습이란 배움의 과정으로서 나에게 도전과 같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보육교사를 해야 하는지 사회복지사를 해야 하는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두 실습을 마치고 진로를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예비보육교사E, 면담, 2015. 09. 18).

이번 실습은 졸업 후 나의 진로를 정하게 된 것에 가

장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동안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중 갈등하고 있었던 내가 아이들이 예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는 교사가 될 것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거든요(예비보육교사F, 면담 2015. 09. 25).

유아들은 정답이 없는데 유아가 배추를 빨간색으로 칠했을 때 “배추가 빨간색이야?” 라고 물었다. 이 때 유아에게 왜 배추를 빨간색으로 칠했는지 이유를 묻고 들었어야 했는데 보육만을 전공한 게 아니어서 더욱 미숙한 것 같았다(예비보육교사A, 저널, 2015. 06. 23).

어린이집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 보다 적성에 안 맞고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로 일해야 할 것 같아요(예비보육교사G, 면담 2015. 09. 15).

2. 예비보육교사들과 딜레마와의 헤어짐

2.1 영유아들의 변화

영유아의 작은 변화 하나라도 교사들에게는 오아시스와 같다. 영유아들과의 관계형성이 실습기간 동안 쉽지 않았지만 자신의 지도로 인해 변화되어가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고 교사로서 조심스레 한발을 내딛는 자신을 대견해하기도 하였다. 이는 교사로서의 존재감 및 영향력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영아들이 촉감길 교구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 교구를 가지고 좀 더 확장된 놀이를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 촉감 길에 있는 천을 함께 돌돌 말아보는 놀이를 하면서 영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뿌듯했다(예비보육교사F, 저널 2015. 06. 23).

아이가 계속 때를 썼는데 선생님이 아이에게 속상했구나 하면서 감정부터 읽어주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친구의 장난감을 뺏는 아이에게 이유를 묻는 것보다 먼저 감정을 읽어주니까 아이가 장난감을 스스로 돌려주었다(예비보육교사I, 저널 2015. 07. 21).

아이가 아침에 엄마랑 헤어지는 것이 싫어 많이 울었

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활동 중에 잘한 점을 기억한 뒤에 칭찬을 하고 “내일은 엄마랑 헤어져도 울지 않고 잘 기다릴 수 있지?”라고 물었더니 “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다음날 엄마와 정말 씩씩하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고 신기했어요(예비보육교사H, 면담, 2015. 11. 05).

2.2 동료 예비보육교사들의 응원

예비 보육교사들은 실습을 경험할 동료들과 함께 실습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위안을 주거나 위안을 받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다. 즉, 실습기간 동안 받는 스트레스를 친구들과 수다를 통해 풀기도 하고, 먼저 실습을 시작한 친구를 통해 교구제작이나 수업 계획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면서 실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음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실습을 나가기 전 봉사활동으로도 접해 본 적이 없는 어린이집. 이곳에 취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실습을 나가기 전부터 잠도 오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긴장 되었다. 그런데 친구와 실습을 같이 하게 되어 무지 든든했다(예비보육교사C, 면담, 2015. 09. 29).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실습을 시작해서 다른 친구들을 통해 교구제작이나, 수업계획안을 작성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힘들 때 마다 만나서 화이팅을 해주기도 하고 힘을 받기도 했어요(예비보육교사N, 면담 2015. 10. 19).

2.3 실천적 지식의 획득

학교에서 이론적인 지식만을 획득하고 현장에 나간 예비보육교사들은 현장을 통해 시각을 넓히게 되고 영유아들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습생에서 교사로 거듭나게 되고, 유능한 교사로서 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실천적 지식의 습득은 이들이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아이들의 특성이라서 아이들을 잘 챙기지 않으면 금방 상처가 난다든지 친구와 싸

움이 일어나는 등의 일이 일어나기에 항상 주시해야 하며, 교사가 자리에 있을 때 유아들을 등지고 앉으면 안 된다는 환경적 특성을 몸소 체험 했다(예비보육교사K, 저널, 2015. 06. 30).

유아들이 이동시에 먼저 가기위해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지도교사를 통해 이동할 때 지켜야할 규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약속을 정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예비보육교사M, 면담, 2015. 09. 23).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육실습 시 경험하는 딜레마와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소 시켜 주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아동복지 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의 보육실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실습을 하면서 지도교사, 영유아, 수업, 과중한 업무 및 자신과 관련하여 딜레마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사와의 딜레마는 실습생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계에 대한 미숙이나 여러 요인으로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습기간 내내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역할에 대한 정립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육만을 전공하지 않은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은 실습기관 및 지도교사의 선입견으로 인해 갈등의 요소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는 예비보육교사D의 면담에서 실습지도교사도 사회복지과라고 저를 무시 했어요 라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관계와 관련된 교과목의 배치나 주기적인 특강이 필요하다.

영유아와의 딜레마는 실습 시 예비보육교사들이 봉착하는 기본적인 어려움이다. 특히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교과목만 이수하는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전공 예비보육교사들보다 현장

경험이 부족하고, 영유아와 관련하여 이론으로만 접해왔기에 이 영역에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영유아와의 딜레마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지도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본인의 전공과 관련시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과정의 영유아들에 대한 이론보다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필수교과목외의 교과목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2016년도에 일부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서 필수교과목이 7과목에서 13과목으로 변경됨으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조금씩 해소되리라 사료된다.

수업은 교사의 기본 책무 중에 하나지만 예비보육교사들이 실습과정 중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보육실습을 경험하는 모든 예비보육교사들이 겪을 수 있는 딜레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전경험이 전무한 사회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은 이 영역에서도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찰실습이나 참관실습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두 가지 전공을 같이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부분은 2016년 일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실습이 16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변경되므로 전문성을 확고히 향상시킬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신에 대한 딜레마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교수행동, 유아행동지도에 대한 어려움, 실습 시 겪게 되는 인간관계,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책무를 감당 할 수 있을 것 인지와 관련된 부분이 많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육실습을 하는 예비보육교사들이 겪는 상황이지만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은 선택적 대안이 가능하므로 인해 보육과 사회복지라는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되는 독특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도교사,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수업지도, 자신에 대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 전공예비보육교사들이 겪는 딜레마의 유형을 파악하여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에 이수과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 및 실습생, 실습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정서적·물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야 한다.

둘째, 딜레마를 해소시켜 주는 요인으로는 영유아들의 변화, 실습동료들의 응원, 실천적 지식의 획득이 도출되었다. 이는 실습과정에서 유아들의 변화, 실습동료의 격려, 이론의 실제화 등이 실습의 긍정적인 경험이 있다는 차영숙외(201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18]. 즉, 실습에서의 긍정적인 경험들이 보육실습기간 동안 겪을 수 있는 딜레마를 해소 혹은 감소시켜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유아들의 변화는 예비보육교사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원천이다. 자신들이 배치된 반의 영유아들을 통해 딜레마도 경험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맛보게 하고 교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실습을 하는 동료들의 보이지 않는 격려는 실습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반자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얻게 된다는 조형숙외(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9]. 그러므로 실습을 나가기 전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동료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지도교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지식을 체득했다. 이는 교사로서의 자신감과 전문성 향상에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실천적 지식에 대한 욕구 충족과 이로 인해 영유아 지도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다면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이 실습 시격을 수 있는 딜레마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현장은 교사들이 배운 이론적 그대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경험과 이론적 지식이 융합되어 실천되는 곳이다.

저널쓰기는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 등을 기록함으로써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고 비판적 관점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천적 지식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다[20]. 그러므로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이 반성적 사고를 통해 실천적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널쓰기와 더불어 실습지도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아동복지전공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다양한 학과를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선택적 대안이 가능한 학과의 보육실습지도가 보다 용이하리라 사료된다.

참고 문헌

- [1] J. M. Machado and H. M. Botnarescue, *Student teaching : Early childhood practicum guide* (7th ed.), Cengage Learning, 2011.
- [2] 임경옥, “예비보육교사들의 실습경험에 대한 이야기 -보육교사교육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제16권, 제2호, pp.750-761, 2016.
- [3] 이선미,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 경험에 대한 질적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9권, 제4호, pp.179-200, 2012.
- [4] J. McCarthy, *The content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rogram pedagogy*, in *Early childhood teacher preparation*, edited by B. Spodek. & O. N. Saracho, NY : Teachers college press, 1990.
- [5] 윤건수, 소영진, 김동환, 이종범, *딜레마와 행정*, 서울: 나남출판사, 2000.
- [6] 좌승화, 오정희, “예비유아교사들이 보육실습에서 경험하는 딜레마에 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pp.123-145, 2015.
- [7] 조석훈, “교사양성 교육과정으로서 교육실습의 가치,” 교육행정학연구, 제26권, 제2호, pp.317-342, 2008.
- [8] 박은주, “돌봄의 관점에서 살펴본 보육교사의 윤리적 딜레마,” 유아교육학논집, 제13권, 제5호, pp.45-74, 2009.
- [9] 손효영, 염지숙, “병설유치원 종일반교사의 딜레마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8권, 제4호, pp.101-126, 2013.
- [10] 조형숙, “유아교사의 교직윤리관련 딜레마에 나타난 갈등요인,” 유아교육학논집, 제13권, 제2호, pp.243-276, 2009.
- [11] 좌승화, 오정희, “예비유아교사들이 보육실습에

서 경험하는 탈레마에 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 연구, 제14권, 제1호, pp.123-145, 2015.

- [12]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 [13] John W. Creswell 저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질적 연구방법론*, 학지사, 2010.
- [14] K. Steinar and B. Svend, *Interviews: Learning the Craft of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2nd Edition, California:Sage*, 2009.
- [15] Van Kaam, A *Existential Foundations of Psychology*, New York : Double day, 1969.
- [16] D. K. Padgett,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1998.
- [17] E. G. Guba, *The alternative paradigm dialog In E. G. Guva (Ed.), The paradigm dialog, Newbury Park, CA: sage*, 1985.
- [18] 차영숙, 강민정, 유희정,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육 실습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긍정적 경험,” 유아교육학논집, 제15권, 제3호, pp.369-394, 2011.
- [19] 조형숙, 김우진, 박성혜, “사립유치원 교사의 교직생활 보람에 대한 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제9권, 제3호, pp.91-117, 2010.
- [20] 원미경, 강승희 “예비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력 향상에 대한 저널쓰기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9권, 제3호, pp.429-440, 2007.

저 자 소 개

임 경 옥(Kyung-Ok Lim)

정회원



- 1986년 8월 : 강남대학교 특수교육학과
- 1998년 2월 :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6년 2월 : 강남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1년 2월 : 단국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관심분야> : 특수교육 및 보육 실습, 가족지원